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5.31

나스닥, 이슈 전환 속 차익실현 욕구 확대로 상승폭 축소

서상영

미 증시 동향: 부채한도 합의에서 경기와 연준에 주목하며 차익 매물 출회

•미 증시는 부채한도 협상 합의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으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하거나 상승폭 축소. 특히 엔비디아(+2.99%)와 테슬라(+4.14%)등 일부 기술주가 상승하기는 했으나, 대부분 종목군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차별화가 진행. 이는 시장이 실적시즌과 부채한도 합의 후 경기 둔화와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 등으로의 이슈 전환에 주목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추정. 결국 시장은 차익 실현 욕구가 강화된 가운데 혼조 마감(다우 -0.15%, 나스닥 +0.32%, S&P500 +0.00%, 러셀2000 -0.32%)

특징 종목: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일부 종목군만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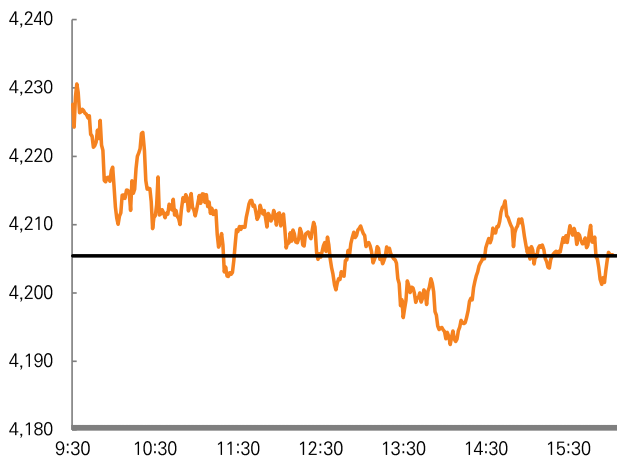
•엔비디아(+2.99%)는 젠슨 황 CEO가 대만에서 열린 포럼에서 생성 AI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는 DGX GH200이라는 슈퍼컴퓨터를 공개하자 한 때 7.7% 상승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상회, 그러나 이후 차익 매물 출회되며 상승분 일부 반납. 퀄컴(+5.12%)도 AI 밸리에 힘입어 강세. 사진 처리에서 매패워 탐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에 AI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칩을 보유하고 있어 AI 산업의 발전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테슬라(+4.14%)는 머스크의 중국 방문 소식에 힘입어 상승. 시장은 상하이 공장생산 계획을 늘리는지, 자율 주행 관련 출시를 중국 정부가 허가할지 여부 등에 주목.

한국 증시 전망: 외국인의 반도체 수급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0.54% 상승, MSCI 신흥 지수 ETF는 1.15%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8.0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3% 하락. KOSPI는 0.3% 내외 하락 출발 예상.

•미 증시가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의 강세에 힘입어 나스닥이 한 때 1.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분을 반납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상승 원인은 전일 한국 증시에 선반영이 되었다는 점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 요인. 여기에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된 점도 부담. 여기에 금과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았던 점도 부정적인 요인. 물론, 원화 강세 기대는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 특히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의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순매수가 이어질지 여부가 관건.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하락 후 외국인의 수급에 주목하며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585.52	+1.04	상해종합	3,224.21	+0.09
KOSDAQ	851.50	+0.98	홍콩항생	18,595.78	+0.24
DOW	33,042.78	-0.15	베트남	1,078.05	+0.29
NASDAQ	13,017.43	+0.32	유로스톡스 50	4,291.58	-0.66
S&P 500	4,205.52	+0.00	영국	7,522.07	-1.38
캐나다	19,739.70	-1.14	독일	15,908.91	-0.27
일본	31,328.16	+0.30	프랑스	7,209.75	-1.29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이슈 전환 ②부채 한도 협상

지난 5월 미 증시는 다우 지수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며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나스닥은 실적 시즌을 지나며 6% 넘게 상승하는 차별화가 진행. 특히 월 후반에는 AI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 속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주도.

그런 가운데 5월 한달은 결국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왔던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정치 불확실성이 높았던 점도 특징. 그렇지만 과거와 달리 채권시장은 이를 반영했으나, 주식시장은 반영하지 않으며 건조한 모습을 보임. 부채 한도 협상 합의 후 주식시장은 AI 산업 랠리와 더불어 안도락을 보인 점도 월 후반 특징 중 하나.

주목할 부분은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시장 변화를 주도하던 실적 시즌과 부채한도 협상 이슈가 악화되자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이슈 즉 ①경기 침체 ②연준 정책 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최근 미국 나스닥의 강세가 뚜렷하고 AI 산업 관련 테마가 강한 모습을 보이자 시장이 환호하고 있으나, 5월 한달 동안 중국과 유럽 그리고 호주와 캐나다 등은 부진이 뚜렷. 이는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독일의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등으로 경기 둔화 이슈가 진행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미국도 비록 고용은 여전히 건조하나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ISM 제조업지수가 47.1에 그쳐 제조업 경기는 위축되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높음. 여기에 지난 금요일 발표된 PCE 가격 지수는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해 6월 FOMC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주목해야 함.

결국 그동안 시장은 실적 시즌을 통해 대형 기술주가 견인하고 AI 산업 관련 기대가 반도체 업종의 강세를 이끌어 왔지만, 이제는 경기와 금리 정책에 주목하며 차익 실현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

한편,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가 합의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민주당의 하원 예산위 간사인 브렌던 보일 의원이 “충분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거래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언급해 민주당은 찬성하는 경향. 그렇지만, 공화당은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공화당 일부 위원들도 이에 가담.

매카시 하원 의장이 언급했듯 하원에서의 표결은 현지시각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시작. 그렇지만 이런 안건이 상정되려면 13명으로 구성된 하원 규칙 위원회 과반수의 승인이 필요. 현재 이 위원회는 공화당이 9명 민주당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2명의 공화당 의원이 상정을 반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성표가 많아 의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 그렇기 때문에 미국 1개월물 국채 금리가 30bp 이상 급락했으며, 여타 국채 금리도 크게 하락. 다만, 규칙 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이 지연된다면 미국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화요일 위원회 표결에 시장은 주목.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엔비디아, 장중 한 때 시총 1조 달러 상회

엔비디아(+2.99%)는 젠슨 황 CEO가 대만에서 열린 포럼에서 생성 AI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는 DGX GH200이라는 슈퍼컴퓨터를 공개하자 한 때 7.7% 상승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상회, 그러나 이후 차익 매물 출회되며 상승분 일부 반납. 쿼컴(+5.12%)도 AI 랠리에 힘입어 강세. 사진 처리에서 맬웨어 탐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에 AI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칩을 보유하고 있어 AI 산업의 발전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C3.AI(+33.42%), 팔란티어(+7.77%) 등도 동반 상승. 다만, AMD(-1.39%), 마이크론(-3.03%) 등은 물론, 알파벳(-0.75%), MS(-0.50%) 등은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하는 등 AI 관련 종목군도 차별화 진행.

테슬라(+4.14%)는 머스크의 중국 방문 소식에 힘입어 상승. 시장은 상하이 공장에서 연간 45만대의 차량 생산 계획을 늘리는지 여부와 자율 주행 관련 출시를 중국 정부가 허가할지 여부 등에 주목. 포드(+4.14%)는 테슬라와의 충전 시설 협력에 이어 제프리스가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상승. 전기차 충전 관련 업체인 차지포인트(+14.13%)는 BOA가 투자 의견 상향하자 강세. 넷플릭스(+3.72%)는 할리우드 작가들의 파업이 종료되었다는 소식에 강세.

반면, 엑스모빌(-0.89%) 등 에너지 업종과 비자(-1.50%) 등 카드 업종, 부킹 닷컴(-2.41%), 라스베가스 샌즈(-2.34%), 디즈니(-0.53%) 등 여행, 레저, 리조트 업종, 캐터필러(-0.90%) 등 기계 업종, 3M(-0.91%) 등 산업재는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로 하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98	대형 가치주 ETF (IVE)	-0.06
클린테크 ETF (CTEC)	+0.42	중형 가치주 ETF (IWS)	-0.04
소매업체 ETF (XLY)	+0.67	소형 가치주 ETF (IWN)	-0.23
온라인소매 ETF (EBIZ)	-1.19	대형 성장주 ETF (VUG)	+0.36
미국 인프라 ETF (PAVE)	-0.41	중형 성장주 ETF (IWP)	+0.21
핀테크 ETF (FINX)	+0.50	소형 성장주 ETF (IWO)	-0.50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1.57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23
클라우드 ETF (CLOU)	+0.39	신중국 고배당 ETF (SDEM)	-1.29
사이버보안 ETF (BUG)	+0.42	신중국 저변동 ETF (EEMV)	-0.36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38	미국 국채 ETF (IEF)	+0.78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63	하이일드 ETF (JNK)	+0.42
바이오섹터 ETF (IBB)	-0.72	신중국 채권 ETF (EMBD)	+1.10
로봇&AI ETF (BOTZ)	+1.42	물가연동채 ETF (TIP)	+0.40
반도체 ETF (SMH)	+0.48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75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경기소비재	1,199.03	+0.76	+1.49	+4.04
IT	2,928.21	+0.63	+5.64	+10.50
부동산	224.29	+0.27	-1.80	-5.26
커뮤니케이션	210.77	-0.07	-0.04	+6.26
금융	532.38	-0.08	-1.84	-3.45
산업재	828.48	-0.23	-1.66	-2.08
유틸리티	324.86	-0.39	-2.81	-7.25
소재	476.37	-0.59	-3.19	-6.05
헬스케어	1,473.78	-0.67	-3.62	-5.25
에너지	596.86	-0.94	-1.66	-8.90
필수소비재	756.55	-1.08	-2.83	-6.27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의 반도체 수급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0.54% 상승, MSCI 신흥 지수 ETF는 1.15%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8.0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3% 하락. KOSPI는 0.3% 내외 하락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부채한도 협상 타결과 젠슨 황 CEO가 대만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생성 AI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는 슈퍼컴퓨터를 공개하자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의 적극적인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이날 외국인은 6,751억원 순매수한 가운데 삼성전자를 4,472억원, SK하이닉스를 1,624억원 순매수해 이 두 종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추정. 결국 한국 증시는 이러한 외국인의 수급에 힘입어 KOSPI는 1.04%, KOSDAQ은 0.98% 상승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의 강세에 힘입어 나스닥이 한 때 1.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분을 반납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상승 원인은 전일 한국 증시에 선반영이 되었다는 점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 요인.

여기에 국제유가가 OPEC+ 회담을 앞두고 중국 수요 둔화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된 점도 부담. 여기에 금과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았던 점도 부정적인 요인.

물론, 달러/원 환율이 8원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등 원화 강세 기대는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 특히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의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순매수가 이어질지 여부가 관건. 이 경우 대부분 종목의 약세에도 지수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하락 출발 후 외국인의 수급에 주목하며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소비 심리 지표 둔화

미국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103.7보다 둔화된 102.3으로 발표됐으나 예상했던 100.0을 상회. 풍부한 일자리는 47.5%에서 43.5%로 축소된 가운데 구직의 어려움은 10.6%에서 12.5%로 상승해 고용시장의 위축 가능성이 부각.

5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23.4나 예상했던 -19.5를 하회한 -29.1로 발표.

3월 케이스 쉘러 주택가격 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1% 하락을 뒤로하고 0.5% 상승으로 전환. FHFA 주택가격 지수도 전월 대비 0.7% 상승에서 0.6% 상승으로 폭은 둔화되었으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음.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1개월물 미 국채금리 급락

국제유가는 OPEC+ 회담을 앞두고 추가 감산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 부각된 가운데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가 유입되며 하락. 여기에 주요 변수가 완화된 이후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 연준 정책 등을 주목하고 있어 수요 둔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점도 부담. 석탄과 철광석은 물론, 대부분의 상품 선물 시장이 약세를 보인 점도 투자 심리 하락 요인.

달러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음에도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특히 부채한도 협상 타결 이후 하락 요인에 민감한 점도 영향. 그러나 경기 침체 우려를 앞두고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자 약세폭은 제한.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달러 대비 강세. 유로화는 심리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근 약세에 따른 되돌림이 유입되며 달러 대비 강세.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소폭 약세를 보인 가운데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멕시코 페소, 브라질 헤알 등 상품과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약세.

국채금리는 지표 부진에 이어 부채한도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특히 1개월물이 부채한도 협상 타결을 반영하며 33bp 넘게 급락. 물론,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 가능성이 높으나, 오늘 시장은 부채한도 협상 타결에 주목하며 하락했다고 볼 수 있음.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금리 하락에 힘입어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하며 하락. 곡물은 거시경제 둔화 우려 속 조만간 주요 작황지에 비가 내려 작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자 하락. 더불어 브라질의 곡물 수확 확대도 영향. 특히 러시아의 밀 가격 인하 소식에 밀의 하락폭이 컸음.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38%, 철근은 1.41%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9.46	-4.11	-3.29	Dollar Index	104.061	-0.14	+0.55
브렌트유	73.54	-4.28	-4.00	EUR/USD	1.0734	+0.24	-0.33
천연가스	2.33	-4.43	-3.75	USD/JPY	139.79	-0.47	+0.87
금	1,977.10	+0.74	-0.90	GBP/USD	1.2411	+0.45	-0.02
은	23.24	-0.30	-2.39	USD/CHF	0.9059	+0.18	+0.51
알루미늄	2,224.00	-0.60	-1.75	AUD/USD	0.6517	-0.34	-1.41
전기동	8,123.00	-0.15	-0.06	USD/CAD	1.3597	+0.04	+0.70
아연	2,302.50	-1.75	-5.31	USD/RUB	80.8966	+0.49	+0.77
옥수수	594.00	-1.66	+4.03	USD/BRL	5.0418	+0.48	+1.40
밀	591.00	-4.18	-2.64	USD/CNH	7.0904	+0.07	+0.36
대두	1,296.50	-3.10	-3.39	USD/KRW	1,324.90	+0.03	+0.52
커피	177.10	-2.48	-6.40	USD/KRW NDF1M	1,318.00	-0.29	-0.0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694	-10.41	+0.23	스페인	3.388	-10.90	-13.00
한국	3.653	+0.80	+17.30	포르투갈	3.063	-10.70	-18.20
일본	0.435	-0.60	+3.10	그리스	3.800	-6.10	-8.30
독일	2.342	-9.20	-12.70	이탈리아	4.151	-12.60	-17.0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